

## 나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이야기

나는 Laguna Woods 라고 불리는 시니어 타운에 22 년째 살고 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동네의 한 건강보험 agent 로부터 나에게 맞는 좋은 보험회사라며 UHC 소개를 받았고 첫 인연을 맺게 되었다.

나이가 들어 갈수록 병원에 가는 횟수는 늘었고 고질 병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른 여러 보험회사들과 비교하게 되었고 연말이 되면 다음해에 선택해야 할 회사와 제공하는 플랜에 대해 공부했다. 매해 변경되는 플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읽으면서 타 회사와 비교한 결과 계속 UHC 보험 회사를 선택하게 되었다.

우선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늘 대기하고 있는 것이 참 좋았다. 언제든 질문이 있으면 유창한 한국말로 물어보고 속 시원히 답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편했다. 영어를 못해서도 아니지만 부모에게서 배운 모국어를 쓴다는 것이 편안한 마음을 갖게 했다.

그러던 중 남편이 2017 년 가을에 폐암 4 기의 선고를 받은 후, 수술을 할 수도 없었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더더욱 불가능했기에 당시의 당황함과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이 크기만 했다. UHC 의 HMO 플랜을 가졌던 나는 주치의의 추천이 없이도 원하는 의사에게 갈 수 있는 PPO 를 들지 않았음을 후회하기도 했다.

암 전문 의사를 만나고 많은 검사와 치료 과정에서 아무리 보험이 있다한 들 앞으로 써야 하는 경비도 은근히 걱정거리로 다가왔다. 요즘의 수명을 참고한다면 아직도 젊은 나이라고 생각하니 시한부 남편의 암 투병은 안타깝고 무척 슬프기만 했다.

키모 치료를 거절한 남편은 전문의가 조제해 주는 약을 복용하며 암세포가 퍼져 나가는 속도를 지연시켜 주는 것 만도 다행이라며 현실을 받아 드렸다. 나는 음식에 주력하여 영양보충에 집중하고 계속하여 의사의 의견에 적극 따르면서 열심히 약을 복용하게 했다. 남편은 처음 2-3 년은 그런대로 잘 견디며 앞으로의 신앙생활이나 장례에 대한 계획도 세우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듯했다.

폐에 물이 고이게 되면 병원에 가서 주사로 물을 빼내지만 날이 갈수록 물을 빼는 횟수는 빨라 졌고 몸도 많이 쇠약해짐을 느끼게 됐다.

결국 암 전문의사는 폐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수술을 권장했고 UHC 보험에 신청을 하였고

바로 승인을 받았다. 암 전문의의 소개로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신 폐 전문 수술의가 수술을 준비하는데 1 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수술은 완전 성공이었고 5 일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다.

그 후에 물은 더 이상 고이지 않았지만 방광암이 생겨 또 다른 수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남편이 비뇨기과 전문의를 만나 치료받으며 5 번을 수술하는 동안도 마음이 평안했다. 수술과 치료를 받으면서 이미 UHC 보험으로 완전히 병원비가 지불된다는 것을 알았고 믿음이 가는 실력 있는 의사들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경과는 매번 성공적이었고 우리 부부는 훌륭한 의사를 만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많은 수술과 진료와 검사 과정을 거치며 UHC 보험을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불행 중 다행이었는데지 모른다고 생각되었다.

HMO 플랜이기에 담당 의사에게 가서 추천을 받고 보험에서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대부분 그 날로 approve 가 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결국 마지막 1 년은 힘겨운 투쟁이었지만 방사선 치료를 10 번씩 2 번을 받았고 3 번째 10 번의 예약을 받은 첫날 방사선 치료실로 가지 못하고 병원으로 직행을 했다.

그 후 집으로 오고 싶다는 그의 소원을 들어 남편은 퇴원을 했고 호스피스로 2 달을 견디다 평안한 가운데 천국으로 갔다. 천사의 꿈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5 년을 병마와 싸우다 갔지만 보험에서 거의 모든 비용을 해결해 주어 아내에게 전혀 경제적인 부담이 없음을 알고 편히 눈을 감았으리라 생각해 본다. 아픈 동안 우리가 지불한 것은 가끔 주사 약값의 코페이 정도였고 방사선 치료할 때마다 50 불씩 병원에 내는 시설 사용료였다. 이 모든 비용도 out of pocket 한도 액수가 넘으니 다음 해에 그 넘은 돈의 액수를 체크로 보내 주었다.

암 선고받은 후, 5 년동 남편은 UHC 에게서 많은 혜택을 받았고 지금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누구든 건강 보험에 대해 물으면 나의 경험을 토대로 UHC 에 대해 설명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많은 보험 회사들이 부분적인 한 두가지 특별한 메뉴로 고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지만 나는 전체적인 혜택을 고려하고 얼마나 빨리 회사가 선처를 해 주는지를 우선 순위로 결정을 내리며 지금도 변함없이 UHC 를 선택하게 된다. 내가 정말 고통받고 걱정으로 힘들어 할 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었고 또 훌륭한 의사로 인연을 맺게 해 준 그때의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 UHC 를 계속 내 품에 간직하고 사용하고 있다.